

[실무수습-법무법인 지평지성]

“좋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정수연

- 1987년 1월 생
-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생



I. 변호사와 로펌, 지평지성 그리고 좋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동계방학 중 1주일간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실무수습을 하였습니다. 로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1주일간의 실무수습은 대형 로펌의 업무의 대강과 소속 변호사분들의 투철한 직업의식, 나아가서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 인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1주일간의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서 저의 지평(地平)을 넓히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지성(志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과제 수행을 통해서 지금 1학년을 마친 로스쿨생으로서 ‘철저한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저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토로 변호사가 가져야할 사명감, 문제의식, 품성,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글로나

마 제가 1주일간 부딪히며 느끼고 깨달았던 바를 같이 고생하고 있는 로스쿨 동료들, 법조인을 꿈꾸시는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II. 실무수습 일정

이번 실무수습은 1학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5일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소송서면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대표변호사님의 강의 및 주니어, 시니어 변호사님들과의 간담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제출한 두 과제를 강평해 주시면서 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 소송과제

첫 번째 과제는 1심 판결문을 읽고 항소심 준비서면을 위한 '메모'를 작성하는 것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1년차 변호사라고 가정하고 선배 변호사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모작성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를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1심 판결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증거자료가 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위 서면들에 현출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사항을 근거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10장 내외의 소송메모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받았을 때 가장 문제 되었던 것은 '소송메모' 라는 서면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법문서 작성 수업 등을 통해서 의견서등을 작성해본 학생들은 있었지만 '소송메모'라는 형식은 참가 학생 모두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제 제출 형식에 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성을 해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변호사가 1심판결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과 사고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신입변호사분들이 많이 수행하시는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1심에서 항소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학생들도 실제 담당변호사처럼 문제되는 법리를 검토하였고 승소 할 수 있는 모든 법리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에서 글로 써 배우는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포섭'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2. 의견서 작성

두 번째 과제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제였습니다. 사안의 개요가 주어지고 의뢰인 회사의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해당사안의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장 내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작성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것은 해당 사안을 통해서 고민해본 법리적인 문제와 법률의견질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법리적인 문제에서 1학년 동안 공부했던 채권자 대위권,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대해서 다양한 판례를 스스로 검색해 보았고 법서를 찾아 보면서 어떠한 학설, 논리, 또는 유사판례사안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서에서만 보았던 중요한 법리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실무에게 해당사안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변호사가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펌과 의뢰인간의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했던 과제 수행은 의뢰인이 회사인 경우 사내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여 질의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때 특정 법리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 및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승소 가능성, 회사의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법률적 방안을 찾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3. 소속 변호사분들과의 교류

지평지성 1학년 인턴의 경우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조 담당 변호사 1분이 최대한 참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점심 저녁식사 때는 파트너 변호사 1분과 조 담당 변호사 분과 동행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변호사 생활, 채용과정, 업무분야에 대해서 여쭙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니어 변호사와의 간담회 시간에는 3-4년차 변호사로서 담당하게 되는 업무, 전문분야를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 로펌 내에서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니어 변호사와의 간담회 시간에는

소송-자문으로 나뉘어서 커리어를 쌓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일에 대한 보람에 대해서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Ⅲ. 실무수습을 통해서 성장한 점

1. 과제수행능력

실무수습 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은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었 습니다. 주어진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메모작성 과제와 의견서 과제 수행 두 가지를 제출하고 마지막 날 강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비법학사였기 때문에 실무수습 나가기 전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1학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부딪혀서 배우는 것이 왕도라고 생각했고 실무수습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저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법리에 대한 유사판례를 새벽녘까지 검색하고 1학년 때 읽었던 기본서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학교에 돌아 왔을 때 실무수습동안 접했던 판례는 신기하게도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고 이제야 '저의 지식'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얻는 것이 많지만 같이 실무수습을 했던 동료들에게도 배운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과제 수행에 참여 하는 분위기 이지만 2학년 하계인턴처럼 경쟁적인 분위기는 아니어서 저는 모르는 부분은 다른 인턴들에게 묻고 같이 의논도 하면서 막막했던 과제 수행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다녀와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들

(1) 로펌 업무에 대한 이해

사실 저는 '로펌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로펌 내부의 실질적인 업무분장, 업무영역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수습을 통해서 로펌이라는 곳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업무분장하여 수행하는 곳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막연한 '대형로펌 채용' 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로펌의 어떤 분야에서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고 목표설정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나의 지평(地平)을 넓힐 수 있는 기회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의 직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로스쿨 생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실무수습에 참여하였는데, 1주일간의 실무수습을 통해서 저의 지평,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로스쿨생으로서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첫 날에는, 소송서면 및 의견서 작성 과제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지만 치열하게 과제를 해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전문직으로서 잘해야 하는 부분- 법률지식부문 - 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잘할 수 있는 부분 - 법률지식을 어떠한 분야에서 발휘할 것인가 - 에 대해서도 고민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변호사로서의 자세를 지성(志誠)할 수 있는 기회

저는 학교에서 사실 공부를 하다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만'을 위한 공부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을 마친 저로서 아직 배움의 깊이가 깊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왜 '확실히' 알아야 하고 '정확히' 사안에 포섭할 줄 알아야 하는지 에 대해서 나름의 깨달음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겼습니다. 왜 사례집에서 말하는 사실관계 파악 및 쟁점을 뽑아내는 능력이 실무에서 이렇게 중요하니까 로스쿨에서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 해야했구나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needs를 이해하고 기본법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문장력 있게 서면에서 논리를 발휘하기 까지 기본이 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IV. 실무수습 지원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1학년 실무수습 채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던 것은 자기소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학년 실무수습의 경우에는 학과성적이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1학년의 경우에는 자유형식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난 지원자의 생각, 진정성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실무수습 지원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주변 동료들과 교수님에게 조언을 받아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였습니다. 향후에 법무법인 지평지성 실무수습에 관심이 있으신 로스쿨생 분들은 이러한 점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 마치며 - “좋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양영태 대표변호사님 강연 중에 “좋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남을 돕는” 직업이라는 전제하에, 의뢰인을 이익을 대변 할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해당 사건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담대한 마음으로 변호사 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진정성 없는 자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대표변호사님의 가르침이 예비법조인으로서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법학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에 임할 때 내가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개발한 최고의 전문성이 결국에는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1주일간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지평지성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